

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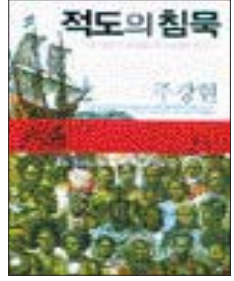
Books

우리 눈으로 본 영국의 태평양 문명사

적도의 침묵

주강현 지음

'사이판' '팜' '하와이' '타히티'는 작열하는 태양과 눈부신 바다로 유명한 휴양지다. 이들 섬은 지구상에 몇 군데 안 되는 지상 낙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른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2만5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 '적도 태평양 군도'(이하 적도 군도)는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함포와 '선진'을 앞세운 선교사에 의해 원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방됐다. 개방과 함께 매춘과 총기 사용 등 급속도로 밀려든 서구문화는 원주민의 전통문화를 뿌리째 흔들었다.

주강현 해양문화재단 부설 해양문화연구소장이 해양연구원의 배 '온누리'로 3천여 마일을 달려 적도 군도에서 삶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찾아 '적도의 침묵-해양문명의 교차로, 적도 태평양을 가다'로 펴냈다.

민속학자로 유명한 저자가 '계몽해야 할 야만'으로 본 서구식 사고에서 벗어나, 각종 고증을 토대로 고고학·역사학·지리학·종교학·문화학·민족학·민속학·인류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총동원해 원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살폈다.

책에는 서구화로 왜곡된 전통 문화,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한 식민지 역사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원주민들의 관습과 일상, 지구 온난화 탓에 수면이 높아져 고통받는 이야기 등 태평양 섬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실려있다.

컬러삽화와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탐험가



세계적인 과일회사로 알려진 돌(Dole)사의 파인애플 농장.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가 폐지되자 미국은 하와이를 거점으로 삼아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노동력을 공급받았다.

로 끄는 제임스 룩 선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원주민이 믿는 신화를 근거로 들어 문명과 야만의 갈등 때문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룩 선장의 일행과 갈등을 빚게 되자 신화 속 전쟁의 신인 '쿠'가 현실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하와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개발된 와이키키는 지상 낙원이었다 호놀룰루를 군인, 관광, 매매춘, 상품 등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홀라출은 즐거움과 경외, 한탄, 신에 대한 찬미 등이 어우러진 원주민 사회의 대표적인 제의였지만, 서구인들이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잡다음용으로 전락했다며 서구가 원주민 사회의 전통문화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책에서 고기잡이도 배워야 하는 태평양의

원주민 아이들이 자기 삶의 조건이나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세익스피어를 배우고 파야노를 배우느라 자신들의 신화와 역사, 문화를 배우지 못하는 데에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서구가 주장하는 '사회변동'이 다른 문화와 민족에게는 파괴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저자는 역사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고와 관습, 신앙과 생활관에서 바라본 생활사 연구가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탐사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실증적인 내용과 함께 예리한 분석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도판과 530여 장에 이르는 사진자료가 수록돼 있어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기행문처럼 쉽게 읽힌다. <김영사·3만6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 세계의 지성 49인에 묻다

'과거 가치들은 과거의 것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윤리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할 뿐이다.'



자크 데리다, 장 보드리야르, 제레미 리프킨, 폴 케네디, 나딘 고디머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의 지성 49명이 말하는 미래의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는 어디로 가는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1997년 기획한 '21세기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글들을 묶은 책이다.

<문화와 지성사·2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설득의 심리학 2

노아 골드스타인 등 지음·윤미나 옮김

영화 '스타 워즈' 시리즈의 여섯 번째 에피소드인 '제다이 귀환'편을 보면 스타워워커는 다스 베이더의 마음을 움직여서 배신하도록 만든다. 스타워워커는 "당신 안에는 선한 것이 있어, 나는 느낄 수 있어"라는 말 한마디로 다스 베이더를 설득한다.

그렇다면 이런 단순한 말로 약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 수많은 사회심리학 연구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설득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을 바꿀 목적으로 사용되

효과가 확인된 설득 전략 50가지

는 여러 설득의 방법을 과학적으로 증명된 책이다. 지난 2002년 국내에 번역돼 100만부 이상 팔린 '설득의 심리학'의 후속작이다.

기밀처럼 얹혀 있는 인간 관계에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한 실전 심리학이다. 실생활에 유용한 50가지의 설득 기술이 제시됐다. 본문은 6가지 설득의 법칙을 다시 50가지 설득 전략으로 구분했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린다.

저자와 그 동료는 설득에 관한 지난 60여 년간의 연구 결과와 최신 심리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설득 전략만을 소개했다.

영화 속 스타워워커가 다스 베이더의 마음을 풀린 것은 '라벨링(labeling)' 기법이다. 이 기법은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성, 태도, 신념 등과 같은 라벨을

붙인 다음 그 라벨에 어울리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실험으로 증명됐다. 엘리스 티부 교수팀은 유권자를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부류와 그렇지 않은 쪽으로 임의로 나눴다. 또 "인터뷰 결과 당신은 투표할 가능성이 크다"와 "당신은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통보했다. 그러자 투표를 할 것이라는 라벨이 붙은 부류의 유권자 투표율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15% 높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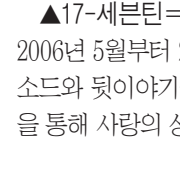
저자는 설득의 기술이 아닌 과학이라고 역설한다. 말재주가 아닌 잘 계산된 설득의 전략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이다.

<21세기 북스·1만2천원>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새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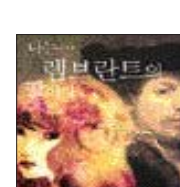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실계보=한 권으로 읽는 왕조실록으로 잘 알려진 박영규가 조선왕실 역사를 열전 형식으로 살폈다. 왕실을 둘러싼 인물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식주와 사생활·혼인·책봉례·세례 등 왕실과 그 주변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았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천원>



▲17-세븐틴=원간 PAPER의 편집장인 황경신의 열 번째 단행본. 2006년 5월부터 2007년 6월까지 PAPER에 연재되었던 12개의 에피소드와 뒷이야기를 담았다. 열일곱 살 여자가 아이 나나와 주변 인물들을 통해 사랑의 상처와 고통, 화해를 그렸다. <소담출판사·9천원>



▲차미리사 평전=한국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이자 교육운동가였던 차미리사(車美理士·1879~1955)의 일대기. 일제 강점기 여성 교육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한국부인회, 덕성학원 등을 설립하고 이주 한인들의 구제활동 등에 나선 차미리사의 활약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푸른역사·1만8천원>



▲나는 렘브란트의 딸이다=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함께 17세기 유럽 최고의 화가로 꼽혔던 렘브란트의 삶과 가족, 예술세계를 토대로 한 픽션 소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베드로' '목욕하는 여인' 등 11점의 작품 제작에 얽힌 이야기도 함께 실려있다. <뜨인돌·1만1천원>



▲일생에 한 번쯤은 파리여행=영화감독 '스크린'의 편집장 출신인 황희연이 300일 동안 스페인, 프랑스, 터키, 그리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트남 등 세계 곳곳을 누빈 기록을 담았다. 글록, 사진 등 사진과 함께 다양한 여행정보도 실려있다. <예담·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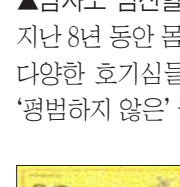
▲보스코네로가의 영리한 밤=괴테가 이탈리아 여행 중 겪었다는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고딕소설. 이탈리아 신예작가인 플라비오 산티가 1786~1788년 이탈리아에서 끄찍한 일을 겪고 난 뒤 '파우스트'를 완성했다는 괴테의 고백록을 토대로 이 경험의 실체를 추적한다. <문학동네·1만1천원>



▲환상의 괴수 무법배를 찾아라=다카노 히데유키가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수수께끼의 괴수를 찾기 위해 떠났던 아프리카 밀림 탐험기. 적도 바로 아래의 밀림에 도전한 와세다 대학 탐험부 11명의 좌충우돌 여행기가 실렸다. <미래인·9천원>



▲남자도 임신할 수 있을까?=자유기고가 리치 존슨과 빌 존슨가 지난 8년 동안 몸, 사랑, 죽음, 동물 등 4개 분야에 걸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호기심들을 엮었다. '지구 밖에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등 '평범하지 않은' 궁금증들을 모았다. <хин스·1만1천원>



▲80년의 데이트 세계일주=여행 전문기자이자 BBC라디오에서 자신만의 여행코너를 맡고 있는 제니퍼 콕스가 8개월 동안 4개 대륙의 18개국을 돌며 80번의 데이트를 본 후 동반자를 찾았다는 경험담. 각종 남성들의 다양한 특성도 간단하게 소개했다. <이프·1만3천원>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수원지구 건물임대 1층 330㎡ 분할가능 2층 340㎡ 170㎡ 3층 340㎡ 분할가능 4층 340㎡ 5층 340㎡ 6층 200㎡

첨단일계공인중개사 급매매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062-226-0047~8

법원경매 전문회사 010-3666-8446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